

“신청사 건립부지 이전 비현실적”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힘 모을 때”... 행정절차·실시설계 후 2021년 착공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부지 이전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익산시는 “현 청사부지는 익산시 인구의 약 76%가 밀집되어 있는 중요생 활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익산시 전역 과 대교로망이 편리하게 연계되어 있 어 대다수 시민이 편리하게 찾고 이 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현 청사부 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청사는 건축된 지 50여년이 경과 된 노후 청사로 지난 2003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확보, 시 민의 이용 불편, 유지관리에 따른 경 제성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이 바람 직할 것’으로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007년 신청사 건립을 추 진하였으나 청사 위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좌절 됐고 그간 안전성 문제와 많은 불편 에도 불구하고 노후 청사를 지금껏 사용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지진 등의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청사의 안 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신청사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익 산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국토교통 부 공모사업인 “노후공공건축물 리뉴 얼 선도사업”으로 현 청사 위치에 신 청사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는 청사의 기본적인 업무공간과 함께 시민광장, 다목적공연장, 시민회 의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민편의시설 을 반영 수립한 익산시 신청사 기본 구상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타당 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방 재정투자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

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1년에는 공사를 착수해 조기에 청사건립을 완 료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 시 외곽지역에 시청 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지금도 여전히 서부권, 북부권 등 지역별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지 역균형발전, 인구밀집도, 구도심 침체 등의 다양한 이유로 청사유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청사 위치에 대한 지역 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합 의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은 시민들에 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잠재 적인 지역갈등 요인으로 자칫 청사건 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 청사 위치가 거주 지역을 떠나 대다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하고 합의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지역 간 청사유치를 둘러싼 목소리가 높아 질 경우 지역이거주의에 합몰돼 과거 의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 금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시민이 원 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청 사를 건립하는데 힘을 모으고 소통하 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청사건립에 따른 재 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LH와 함께 익 산시 소유 공유지 개발을 통한 청사 건립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으 며 더불어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구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도 연계 추진하는 등 단순한 청사 건 립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일 으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다각 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 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어린이한마음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축제 개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축제인 2019년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한마음 축제가 최근 대야면 소재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군산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김복순)와 군산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영국)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학부모,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약 1,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한마음 축제는 군산 시 전체 4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가 한뜻으로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단체줄넘기, 풍선터프리기, 윷놀이 등 18종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전파로 즐거움을 제공했다. 이미화 열린학교 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이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 울릴 수 있는 캠퍼를 만들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주얼팰리스 입점업체 자격 완화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주얼팰리스 입점업체 자격에 왕궁지식산업센터 공동제조시설에 입주한 업체를 추가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4일 익산시는 지난 4월 조례개정에 따라 입점업체 대표자 명의변경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입점업체의 자격기준을 왕궁지식산 업센터 공동제조시설 입주업체도 입 주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왕궁보석박물관 옆에 위치한 주얼팰 리스는 현재 6개의 입점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1층은 파인주얼리, 2층에는 패션 주얼리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주얼팰리스 입점업체 자격은 익산 지 역 내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한정돼 있어 제조시설을 갖추기에 나섰다.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규모 업체 가 주얼팰리스 입점업체 자격을 갖추 기 위해 형식적인 제조시설을 운영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얼팰리스 입점업체와 간담회를 개 최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왕궁지식산업센터 공동제조시설 입 주 업체를 주얼팰리스 입점업체 자격 조건으로 추가 신설하고 있다. 주얼팰리스 입점업체 협의회는 이를 적극 활용해 올 6월부터 왕궁지식산 업센터에 공동제조시설 준비를 계획 하고 있다. 주얼팰리스협의회 송재규 회장은 “왕

궁지식산업센터 공동제조시설 협의체 (가칭) 운영은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영세업체에게는 희망이다. 고유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로 활용했다. 한편 지난 조례개정에 따라 입점업 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이 없는 경우 등에 따른 대표자의 명 의 변경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시에 운영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 제6조 입점업체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심사에 변경하게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폭염대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군산시보건소(소장 정현태)가 폭염 건장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시에 보 고된 온열질환자는 27명(열사병 10명, 열탈진 9명, 열경련 6명, 열실신 2명)으 로 연령대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가장 많으며 이 중 사망자는 없다. 이에 보건소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 시체계’로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응 급실에 내원한 일일 온열환자 발생현 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예방수칙홍보를 온열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또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더불어 폭 열대체 기간 동안 보건인력 40여명이 직접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무더위쉼터 424개소로 안내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유입방지 총력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중국 등 아 시아 4개국에 이어 홍콩으로 유입된 돼 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대책에 적극 동 참해 줄 것을 긴급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에 만 발생하는 악성가축전염병(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돼지가 병에 걸릴 경우 현재까지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달하

는 위험한 가축질병이다.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선제 적 차단을 위해 관내 돼지 사육농가 185호 농장에 대한 담당관제를 운영 (총 16명)하고 있으며 질병 예방 등 현장 방역사항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익산시는 오 는 21일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교육 을 실시하는 등 양돈농가의 질병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할 계 획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 돼지 밀집사육지역이 왕궁지역 에 소재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에 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며 “ASF 발생국의 해외여행을 자 제하시기 당부드리며 귀국 시 출입국 신고 및 방역 실시 후 국내 농장에 5 일 이상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한 돈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시내버스 결행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시내버스가 자연·결행되는 경우 시민들은 이를 알지 못해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휴 대폰 문자 메시지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결행지연정보 문자알림 서

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중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시 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가 노선인 발 생할 경우 즉시 핸드폰에 문자로 제 공하는 알림서비스다.

20일부터 익산시 교통행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 ‘찾아가는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

내일 ‘자녀교육 전문가’ 송지희 소장 초청 강연

평생교육도시 군산시가 자녀교육, 재테크, 자기계발, 미용 등 여러 분야 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찾아가는 군산새만금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 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군산어린이 공영장(나운동, 7KBS공개홀)에서 자 녀교육 전문가인 송지희 소장을 초청 하여 ‘명품자녀로 키우는 부모력’ 강 연이 진행된다. 송지희 소장은 주변의 모든 어른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역할, 자녀의 입장에서 대화하는 법 과 행동의 변화, 인성의 중요성, 자존 감 형성 등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 다. 송 소장은 모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최근 10년간 2000회가 넘는 강연을 통해 전국의 부모를 만나고 있으며, KBS라디오 ‘교육을 말합니다’, SBS 특강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부모역 명’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부모력의 비밀’, ‘명품자녀로 키우

는 부모력’ 등 저서를 출간했다. 새만금 아카데미 강연은 무료로 진 행되며, 당일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교육지원과(☎ 454-260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실시

군산시는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 만들기’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시는 지난 3월 옥산면에서 5월 월명 동까지 각 읍면동별로 지역주민과 이 통장, 주민자치위원을 교육대상으로 매월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간에 교육 했다. 교육 내용은 재난개념 및 안전사고 대처요령, 화재신고 요령, 가스사고 예방법이며 군산소방서와 한국가스 안전공사 관계기관과의 협조 아래 진 행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